



2024년 / 4월 3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16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 4월 문화마당 안내

2024년 4회에 걸쳐 진행할 문화마당의 첫 번째 마당이 열립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을 수료하시고 군산에서 택시운정을 하시며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계신 이상우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문화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7일(토) 15시

장소: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

강사: 이상우(지역문화 연구가)

주제: 달리는 지역문화 연구가가 바라본 성씨 문화

대상: 시민 및 회원(장소 관계로 30명 우선 접수)

### - 5월 문화답사 안내

2024년 5월에 열리는 연구원 문화답사 안내드립니다.

일시: 5월 4일(토) 15시

장소: 전주 숲정이 성지에서 전동성당까지

강사: 전병구(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전주천을 따라 걷는 천주교 성지 탐방

대상: 시민 및 회원(20인 이내)

## - 2024년 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2024년 1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9일(화) 18시에 열렸습니다. 변주승 원장(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운영위원회는 전북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위원 분들은 화상 회의로 참석했습니다.

열다섯 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황일진, 박상형, 황교은, 변장섭 운영위원께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현장에 열분의 운영위원이 참석해 4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원의 본격적인 대면사업의 세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원 사업을 위해 더 뜨거운 헌신을 약속하신 운영위원께 감사드립니다.



2014. 04. 16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  
**백무산**

최초에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만있으라, 지시에 따르라, 이 명령은  
배가 출항하기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다  
선장은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말라, 재난대책본부도  
명령에 따르라, 가만있으라, 지시에 따르라

배가 다 기운 뒤에도 기다려야 하는 명령이 있다  
목까지 물이 차올라도 기다려야 하는 명령이 있다  
모든 운항 규정은 이윤의 지시에 따르라

이 나라는 명령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라  
열정도 진정성도 없는 비열한 정부, 입신출세와  
대박 챙길 일밖에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의 국가,  
선장은 단순잡부 계약직, 장관은 단순노무 비정규직  
그들이 내릴 줄 아는 명령은 단 한가지뿐  
가만있으라, 명령에 따르라

저 환장하도록 눈이 부신 4월 바다를 보면서  
아이들은 성적 걱정이나 했을까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뛰쳐나간 너희들 반성문 써야 할 거야  
물이 목까지 차올라오는데 이러면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했을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서해훼리호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슬픔은 장마처럼 지나가고  
아,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난 따윈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저들  
촛불시위와 행진과 민주주의가 더 큰 재난이라 여기는  
저들이 명령을 하는 동안은, 결코

뒤집어라, 뒤집힌 저 배를 뒤집어라  
뒤집어라,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침몰의 배후에는 나태와 부패와 음모가 있고  
명령의 배후에는 은폐와 조작의 검은손이 있다  
탐욕으로 뒤집힌 세상, 부패와 음모와 기만으로 뒤집힌 세상

이게 아닌데, 이럴 순  
뒤집지 못한 우리들  
가슴을 치며 지켜만 봐야 하다니,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는구나, 뒤집어라,  
폭력과 약탈로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어 저 죽음을 뒤집어라  
뒤집지 않고서는 살리지 못해 저 죽음의 세력을 뒤집어라

뒤집힌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그들  
돌아앉아 젖은 돈이나 세고 있는 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하는 정치  
아이들과 약자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과  
힘있고 능력있는 자들만 구출하는 구원파정부  
자신들만 구원하고 타인은 구렁텅이로 내모는 새나라구원당

뒤집어라,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그리고 저 고귀한 지시를 따르라, 승객을 버리고  
선장과 노련한 선원들이 첫 구조선으로 달아난 그 시각  
선원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다!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다 끝내 오르지 못한 스물두살  
4월을 품은 여자 박지영, 그가 최후의 선장이다  
그 푸른 정신을 따르라, 뒤집어진 걸 바로 세우게 하는,  
죽음을 뒤집는 4월의 명령을!



## 경기평화누리길 제5구간 - 1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푸름이 푸룻푸룻 빛나는 날, 마음 푸른 사람들이 길을 나섰다. 출발지는 심학산이었으니, 그 푸른 둘레길을 출렁출렁 이어 나갔다. 푸른 제복의 추억도 덩달아 따라왔다. 여기가 거긴가? 달리는 차량의 소음에 포위되고 만 오늘의 산자락에도 옛 자취는 다소 남아 있었다. 추억 속의 사격훈련장과 막사 위치가 눈길에 들어왔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은 구봉산龜峰山이었다. 자유로 쪽에서 보면 전체가 거북龜 모양인 데다가, 특히 서쪽 봉우리가 거북이 머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심학산으로 바뀐 시기는 조선 숙종 때다. 당시 숙종이 애지중지하던 학 두 마리가 궁궐에서 도망쳤는데, 마침내 이 산에서 찾았다고 한다. 그 후 학을 찾았다는 의미를 지닌 심학산尋鶴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구봉산이란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이 산 밑에서 태어난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선생의 호가 구봉龜峰이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선생이 태어나기 전 3년 동안 구봉산의 초목이 바짝 말랐다고 한다. 산이 품고 있던 정기가 아랫마을의 선생 한 사람을 낳기 위해 죄 소모된 탓이라는 해석이다.

불행하게도 선생은 서얼 출신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자질의 소유자였으니, 상촌象村 신희申欽 조차 "송익필은 서출이란 신분엔 구속되었지만, 천품이 무척 고매하고 문장 역시 고상했다. 가령 '버들 빛 깊어 연무가 방울질 듯하고柳深煙欲滴, 연못 맑아 백로가 날아가길 잊었네池淨鷺忘飛.'라고 한 두 구절을 보면, 시격詩格이 많은 사람을 뛰어넘는다. 맑고도 고운 점이 귀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치로 따져도 저절로 수궁이 간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살아생전 송강 정철·율곡 이이·우계 성혼 등과 가깝게 교류했다. 이들은 모두가 서인西人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었다. 이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가능했던 건 모두 파주 인근에 거처한 때문이었다. 율곡은 임진강 가의 율곡리가 고향이었고, 우계는 그 근처 파주읍에 살았다. 송강은 고양에 살았다. 그리하여 임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화석정花石亭은 이들의 주된 모임 장소가 되었다.

이 모임의 주인공은 단연 구봉 선생이었다. 선생은 서인西人의 제갈공명諸葛孔明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글과 지략은 물론이고 인물과 자태도 뛰어났다. 특히 지략은 이순신 장군조차 탄복해 마지않았으니, 일찍이 율곡의 소개로 구봉산으로 선생을 찾아갔을 때였다. 이순신 장군은 홀로 사랑에 안자 출타 중인 선생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방안 병풍 속의 학이 자신이 구상하던 거북선 모양과 비슷하기에, 장군은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다 네 개의 구멍을 뚫었다. 마침내 외출에서 돌아온 선생은 화를 내기는커녕 모두 48개의 구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간 느낌이 든 이순신은 밤새 용병술과 진법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다음은 선생이 남긴 <산행山行>이란 시다. 선비다운 풍모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산행 중에 앉기를 잊다가 앉으면 가기를 잊나니  
소나무 그늘에서 말을 쉬게 하고 물소리 들노라  
나보다 뒤에 오던 사람 몇이 나보다 앞서 갔는가  
각자 머물 곳으로 돌아갔으리니 또 무얼 다투랴

山行忘坐坐忘行산행망좌좌망행 歇馬松陰聽水聲힐마송음청수성  
後我幾人先我去후아기인선아거 各歸其止又何爭각귀기지우하쟁



파주출판단지는 벌써 시들해졌으니, 임대라고 써 붙인 건물들이 많았다. 스산하다는 느낌이 혹 닥쳐왔으니, 우리나라 출판계의 민낯인가? 얼굴이 돌연 화끈해지고, 한숨이 나왔다. 포장도로를 건넌 뜨거운 걸음이 들판으로 들어섰다. 논들은 질펀하게 물을 품고서, 모내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몇 곳의 부지런한 논에서는 벌써 푸른 꿈이 커가고 있었다. 이곳 또한 경기평야 아니던가? 두어 곳의 논에서 연보라로 피어난 자운영이 자못 반가웠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